

흰말채나무

LANDSCAPING



최 명 섭
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

- ▶ 과명 : 층층나무과
- ▶ 학명 : *Cornus alba*
- ▶ 영명 : Red-barked Dogwood, Siberian Dogwood
- ▶ 일명 : しらたまみず키



▲ 흰말채나무

겨울이 온다, 우리의 주변은 연두빛 새싹의 봄빛도, 풍성했던 여름의 녹음도, 화려했던 단풍도 모두 접혀진 추억 속에 남고 쓸쓸하고 황량하기만 하다.

있을 잃은 앙상한 그 가지는 모든 치장을 벗어버리고 전신을 들어내고 싸늘한 바람과 훑날리는 흰눈 속에서 외로울 때, 또 다른 계절의 아름다움이 있다.

마당의 한쪽 흰눈이 덮인 곳에 그 흰색을 배경으로 붉고 붉은 흰말채의 가지는 진정 아름답다,

우리나라의 흰말채는 우리에게만 새롭기만 하지만 서양에는 오래 전에 건너가 많은 변종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겨울철의 경관에 빠질 수 없는 아름다운 수종이다.



▲ 흰말채나무



▲ 흰말채나무

1. 생태적 특성

평안북도와 함경북도 해산진의 표고 350~1,800m 사이의 산중턱에 자라는 여러 줄기를 내는 낙엽활엽관목으로 높이 3m에 달하고 지리적으로는 일본, 중국, 만주, 몽골에도 분포한다. 양지 음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잘 자라며 추위에는 매우 강하며 수분이 적당하고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생장이 양호하나 대기오염이 심 한곳이나 해안의 염분이 많은 곳에서는 생육이 불량하다.

2. 형태적 특성

가지가 밑에서부터 많이 갈라지고 여름에는 수피가 청색이나 가을부터 붉은 빛이 돈다. 잎은 마주나며 계란모양의 타원형으로 첨두, 원저이고 길이 5~10cm 로서 표면은 녹색이고 복모가 있으며 뒷면은 백색으로 잔털이 있다. 측맥은 6쌍이며 잎자루는 길이 1.0~2.5cm이다. 산방상(弄房狀) 취산화서(聚散花序)는 가지 끝에 달리고 지름 4~5cm이며 소화경은 길이 5~10mm이다. 꽃은 5~6월에 황백색으로 피며 꽃잎은 피침형이고 길이 3mm 이며 수술대는 꽃잎과 비슷하다. 열매는 타원형이고 8~9월에 백색으로 익으며 종자는 양끝이 좁고 편평하다.

3. 조경수로서의 활용

잎을 잃은 앙상한 그 가지는 모든 치장을 벗어버리고 전신을 들어내고 쓸쓸한 바람과 훑날리는 흰 눈 속에서 외로울 때, 또 다른 계절의 아름다움이 있다.

마당의 한쪽 흰눈이 덮인 곳에 그 흰색을 배경으로 붉고 붉은 흰말채의 가지는 진정 아름답다. 설경을 배경으로 한 붉은 가지는 매혹적이어서 관상 가치가 높다. 생울타리로도 가능하며 넓은 잔디밭에 군식하거나 큰 나무아래에 식재하여도 무방하다.

4. 번식법

번식은 새로 자란 가지를 채취하여 오염되지 않은 상토에 꺾꽂이 하면 새로운 개체를 만들 수 있으며 조경용으로 식재한 후에 오래된 가지는 전정하여 새로운 가지를 받아 감상하면 더욱 선명한 색깔의 줄기를 감상할수 있다

5. 그 밖의 용도

겨울철 붉은 가지를 꽃꽂이용으로 사용 할만하다. 